

한반도 간행 일본어잡지에 나타난 조선문예물 번역에 관한 연구

김 효 순*

uzzanzi@yahoo.co.kr

〈 目 次 〉

- | | |
|--------------------|-------------------------|
| 1. 들어가는 말 | 3. 『한반도(韓半島)』의 조선문예물 번역 |
| 2. 조선문예물의 번역과 시대구분 | 4. 맺음말 |

Key Words : 조선문예물(Korean Literature), 번역(Translation), 『한반도』(『Kanhanto』), 『조선(및)만주』(『Chosen(and) Mansyu』), 춘향전(Chunhyangjeon)

1. 들어가는 말

어떤 형태로든 많은 적든 번역에 정치와 권력이 개입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예 중에 하나가 한일/일한번역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근대이후 수많은 번역이 이루어졌다. 특히 해방 이후부터는 일본으로부터의 일방적 번역이 문제가 되었고, 한국의 출판계에서는 일본 문예물의 번역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에 대해 문화계 국주나 문화권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해 왔다. 동시에 문화개방이 이루어진 199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한류현상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 인터넷 소설 등이 일본어로 활발하게 번역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 연구자들의 주목의 대상¹⁾이 되기 시작하고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연구교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일/일한 번역에 존재하는 역사적, 문화적 콘텍스트에 관한 연구는 연구사도 길지 않고, 그 연구대상도 해방이후의 번역현황에 치중되어 있다.²⁾ 그러나 한일/일한번역에 존재하는 정치성은 식민시기의 번역에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한일/일한 번역은 한국이 식민지화되기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고, 초기 번역은 ‘식민지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식민지 지(知)의 획득, 즉 조선연구라는 과제에 힘입은 바깥다’³⁾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식민지시기의 번역 양상과 의의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식민지 초기⁴⁾나 1940년대⁵⁾, 혹은 특정 작가⁶⁾에 한정되어 있는 등, 개별 연구에 머물고 있어 식민지시기 동안 이루어진 조선문예물 번역의 통시적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선문예물의 일본어번역을 통한 식민지 지의 획득과정, 주체, 구체적인 목적 등은 한일간의 정치, 경제적 상황, 그에 따른 언어정책이나 문화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한반도에서 발행된 일본어 잡지에 번역, 게재된 조선문예물은 재조일본인을 주된 독자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지 본국 일본에서 출판된 조선문예물의 번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1) 예를 들어 박미정의 「인터넷소설의 ‘속어’ 한일번역 분석」(『일어일문학연구』제81집, 2012.5), 이하자의 「한국드라마 『겨울연가』의 일본어번역에 나타난 「お(ご)する」 표현」(『日本語教育』, Vol.47, 2009) 등이 그것이다.
- 2) 윤상인, 김근성, 강우원용, 이한정 지음 『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1945-2005』(소명출판 2008년 07월)는 제목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45년 이후의 일한 번역 현황을 개괄, 분석하고 있다.
- 3) 정병호 「1910년 전후 한반도 <일본어 문학>과 조선 문예물의 번역」(『日本近代文学研究』第34輯, 2011.10), p.147.
- 4) 예를 들어 정병호의 「1910년 전후의 한반도<일본어문학>과 조선 문예물의 번역」(『日本近代文学研究』第34輯, 2011.10).
- 5) 예를 들어 윤대석의 「1940년대 한국문학에서의 번역」(『民族文學史研究』第33輯, 2007), 서은주 「일본문학의 연표화와 식민지 문학의 내면」(『상허학보』22, 상허학회, 2007)
- 6) 윤상인 「번역과 제국의 기억-김소운의 『조선시집』에 대한 전후 일본의 평가에 대해-」(『일본비평』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2), 양동국 「제국 일본 속의 <조선 시 붐>」(『아시아문화연구』제23집, 2011), 황호덕 「제국 일본과 번역 (없는) 정치-루신·룡잉중·김사랑, 『阿Q』적 삶과 주권」(『대동문화연구』제63집, 2008), 박지영 「번역불가능성의 심연-식민지시기 김소운의 전래동요 번역(일역)을 중심으로-」(2010), 임용택, 『金素雲『朝鮮詩集』の世界—祖國喪失者の詩心—』(中公親書, 2000) 등이 바로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근대이후부터 식민지시기의 한일간 정치, 경제상황의 변화와 그와 관련된 언어정책, 문화정책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고, 그와 같은 번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누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번역했는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대상은 한반도 간행 최초의 일본어종합잡지 『한반도(韓半島)』(1903.1-1906.5), 식민지시기 가장 오랫동안 간행된 일본어종합잡지 『조선(및)만주(朝鮮(及滿州))』(1908.3-1941.1)에 게재된 기사로 한다. 이러한 검토에 의해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번역의 주체, 대상, 방법의 상호관련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그 구체적 양상을 한반도 간행 최초의 일본어 종합잡지 『한반도』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조선문예물의 번역과 시대구분

『한반도』와 『조선(및)만주』계재 조선문예물 관련 기사는, 그 게재지가 최초의 종합잡지라는 점에서 혹은 식민지기간 동안 가장 오랫동안 발행된 종합잡지라는 점에서 식민지시기 이전부터 조선어창작을 금지함으로써 소위 ‘국민문학의 시대’에 접어들기까지의 조선문예물의 번역 현황과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일본인이 한반도로 이주, 이민을 시작한 근대이후부터 1945년 조선이 해방을 맞이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한일간 정치·경제적 상황, 조선에서 시행된 언어·문화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대를 구분해 보고, 그와 같은 조선문예물 번역 양상의 개략을 정리해 본다.

제1기:정한론의 대두에서 청일전쟁·러일전쟁

이 시기에는 일본 국내에서 정한론의 대두로, 일본의 새로운 투자처, 특권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로서 조선이 주목되어, 조선이민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기이다. 무역이나 상업, 전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조선어회화 붐이 일어나고⁷⁾, 조선문예물이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번역을 담당할 주체는

7) 성윤이는 「근대 일본에서의 조선어회화 학습 열기-조선어회화서 붐의 실체-」(『아시아

일본인이었고, 정보 제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번역은 직역이 아니라 요약 소개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예:『한반도』의 조선문예물 번역)

제2기:한일합방 전후시대

이 시기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제1차한일협약(1904), 제2차한일협약(을사조약, 1905), 통감부의 설치(1906) 등을 통해 재정과 외교를 장악하고, 내정간섭과 행정권의 장악에 의해 영토와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국적 색채를 노골화한 시기이다. 그에 따라 재조일본인의 수도 급증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지실업(朝鮮之美業)』(1905-1914), 『조선(朝鮮)』(1908.3-1911.11)이 창간되었고, 그곳에는 많은 수의 조선문예물이 게재된다. 특히 한국 문예물 소개에 적극적이었던 곳은 잡지 『조선』으로, 이 잡지에는 조선의 가요, 속요, 동요, 시조, 이언(俚諺), 신체시(新體詩), 소설, 야담집(野談集), 속언 등 다양한 장르의 번역물이 게재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병합되고, 내선일체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조선인들에게 일본어를 국어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목소리가 부각되면서 외국어로서의 조선어를 학습할 필요성도 감소하고⁸⁾, 그만큼 조선문예물 번역도 급감한다.

제3기:1920년대-1930년대

이 시기에는 1919년 3.1운동 이후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총독부 관리 승진시험으로서 조선어시험을 실시하여 철도, 경찰, 우편국 등의 관리들은 조선어를 배울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조선어장려시험이 실시되는데 1918년-1920년판 『조선총독부 시정연보(朝鮮總督府施政年譜)』에 의하면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문화연구』제25집, 2012.3)에서 러일전쟁이후 조선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져 조선어회화서의 발행 및 교육기관이 급증했다고 한다. 또한 桜井義之(1964)의 조사에 의하면, 메이지 초년부터 한일 합병까지 출판된 문헌자료는 600여권에 이르며, 분야별로는 경제, 산업 부문이 가장 많고 조선의 사전, 정치, 역사, 지리, 어학의 순으로 출판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8) 성윤아, 「근대 일본에서의 조선어회화 학습 열기-조선어회화서 범의 실체」 『아시아문화연구』제25집, 2012.3), p.71.

조선에서 내지인 관리로 하여금 조선어를 알게 하기 위해 각종 정책실행에 편리를 도모하고 조선인과의 융화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 단속, 산업 장려 등에서 인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많은 바 총독부 및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내지인 직원, 특히 인민과 접촉하는 지방청 직원에 대해 조선어 학습을 장려하고 1920년 이후 한층 장려하여 내지인 관리로 하여금 조선어에 숙달한 자에 대해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워 1920년부터 이를 실시하여 조선사정에 밝아 각종 정책 실행에 있어 편리하도록 한다.⁹⁾

즉 각종 정책실행에 편리를 도모하고 조선인과의 융화를 위해 관리들에게 조선어를 교육시킬 목적으로 조선어장려시험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내선일체, 효율적인 정책 운용을 위해 총독부 주도로, 민요, 설화 등의 채록·수집·번역 등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표1】은 『조선(및)민주』에서 저자의 직함이 총독부 관리나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명기된 조선문예물 관련기사이다.

【표1】 총독부 관리 집필 1920년대-1930년대 조선문예물 관련기사

筆者	掲載雑誌	題目(掲載号、年月)
朝鮮總督府地質調査研究所 長川崎繁太郎	朝鮮及滿州	『朝鮮と伝説の水』(第226号、1926.9)
李源圭	朝鮮及滿州	『朝鮮民謡の由来と此に現はれたる民族性的一端』(第248号、1928.7)
總督府学務局李源圭	朝鮮及滿州	『朝鮮民謡の由来と此に現はれたる民族性的一端(其二)』(第249号、1928.8)
總督府学務局李源圭	朝鮮及滿州	『朝鮮民謡の由来と此に現はれたる民族性的一端(其三)』(第250号、1928.9)
朝鮮總督府学編輯課李源圭	朝鮮及滿州	『朝鮮歌謡の史的考察と此に現はれたる時代色と地方色』(第253号、1928.12)
總督府李源圭	朝鮮及滿州	『朝鮮歌謡の史的考察と此に現はれたる時代色と地方色(接前号)』(第254号、1929.1)
朝鮮總督府学編輯課李源圭	朝鮮及滿州	『朝鮮歌謡の史的考察(接一二月号)』(第256号、1929.3)
總督府学編輯課李源圭	朝鮮及滿州	『朝鮮歌謡の史的考察(接三月号)』(第259号、1929.6)

9) 『朝鮮語總督府施政年譜』(1918-1920)(1922), pp.140-141.

李源圭	朝鮮及滿州	『最近における朝鮮文芸総論』(第263号、1929.10)
京城商業學校教諭田中初夫	朝鮮及滿州	『民謡雜論』(第270号、1930.5)
中樞院囑託 今村鞆	朝鮮及滿州	『朝鮮の野談を語る』(第342号、1936.5)
中樞院囑託 今村鞆	朝鮮及滿州	『朝鮮の野談を語る(続)』(第343号、1936.6)
京城帝大豫科教授近藤時司	朝鮮及滿州	『朝鮮の伝説と洪水』(第345号、1936.8)
朝鮮總督府囑託村山智順	朝鮮及滿州	『朝鮮の民間信仰』(第345号、1936.8)
朝鮮總督府産金課張承斗	朝鮮及滿州	『朝鮮古代神話と「父」の生理的意義—古代母權家族制度の一考察—』(第372号、1938.11)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1920년대-1930년대의 『조선 및 만주』기사 중에는 총독부 관리, 경성제국대학 교수의 저작, 번역이 눈에 띄어, 관주도 번역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직함이 적혀 있지 않은 필자의 행적을 밝히면 이 시기의 조선문예물 관련 기사는 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관한 구체적 상황과 의의에 대해서는 추후 원고를 달리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동시에 이 시기에는 식민정책의 안정화에 따라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조선의 지식인에 의한 일본어 창작이나 번역이 나타나면서, 조선문학(번역 붐¹⁰⁾이 일어난다. 그 영향으로 이광수의 『가실』, 『유정』 등이 일본어로 번역되고, 『통속조선문고(通俗朝鮮文庫)』 전12권(自由討求社, 1921), 『만선총서(鮮滿總書)』 전11권(自由討求社, 1922-1923), 『조선문학결작선(朝鮮文學傑作集)』 전10권(奉公會, 1924) 등 조선고전문학이 번역되었다. 또한 『오사카매일신문(大坂毎日新聞)』(朝鮮版)의 조선문학 특집인 『반도신인집(半島新人集)』(1934. 6-10), 『조선작가단편집(朝鮮作家短編集)』(1935.1-2), 『반도여류작가집(半島女流作家集)』(1936. 4-6), 『모던 일본(モダン日本)』의 ‘임시대중판 조선판’이 성공(1938. 11)(이광수작, 김사랑 번역의 『무명(無名)』)하였고, 김사랑의 『빛

10) 이 시기에 도쿄에서 『문예수도(文芸首都)』를 중심으로 일어난 조선 붐 현상을 일컫는 표현으로, 이와 관련하여 황호덕은 ‘장혁주가 극본을 쓰고 도쿄 신협(新協)극단에 의해 공연된 <춘향(春香)』(1938.10.25,10.27)을 기점으로 하여, 내지의 문예잡지는 조선문학 특집과 기사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었다’(황호덕 『제국 일본과 번역(없는) 정치·루쉰·룽잉중·김사랑, ‘阿Q’적 삶과 주권』(『대동문화연구』제63집, 2008), pp.381-382.)라고 지적하고 있다.

속으로(光の中)』(『文芸春秋』1940. 3), 김소운 『젓빛 구름(乳色の雲)』(1940. 5), 『조선대표작집(朝鮮代表作集)』(申建訊編, 教材社, 1940), 『조선문학선집(朝鮮文學選集)』 전3권(赤塚書房, 1940), 『조선시론(朝鮮試論)』에 게재된 이익상의 「망령의 나무」(1926. 6), 김동인의 「감자」(1926. 7), 현진건의 「고향」(1926. 8), 「피아노」(1926. 9), 최서해의 「기아와 살육」(2196. 9) 등 근대문학작품의 일본어번역¹¹⁾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1920년대 모더니스트 시인들이나 경성제국대학 잡지 『청량』의 한국인 작가들은 한일 양국어 창작을 실현하여¹²⁾, 근대어로서의 조선어 실험을 시도하기도 했다.

제4기:1940년대 초기

이 시기는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공포, 3월<제3차 조선교육령의 발표>, 4월<국가총동원령>, 1942년 5월 조선인 징병제의 실시 등으로, 전시동원체제가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조선어학회사건(1942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공식적인 장에서의 조선어 창작은 금지되고, 조선의 작가들은 일본어로 창작함으로써 일본제국에 협력하든가, 아니면 붓을 쥐든가 해야 하는 시대였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조선문학의 번역은 1942년 이후 감소경향³⁾을 보이고, 이 시기 조선의 작가들은 모어가 아닌 일본어에 의한 창작을 강요당함으로써, ‘머리속 번역’¹⁴⁾이라는 방법을 취해야 했다. 김사량의 이하 발언은 이 시기 조선인 작가에게 번역행위란 무엇이었는지를 잘 말해 준다.

11) 나카네 다카유키(中根隆行)는 1930년대 조선인 작가들의 번역 의미를 ‘창작으로 가는 중간 과정’ 혹은 ‘창작을 할 수 없는 조선인 작가들이 창작으로 가는 단계로서 선택한 것, 혹은 총독부가 창작을 곧바로 강요하기 어렵기 때문에 번역으로 시작한 것’(中根隆行 『朝鮮表象の文化誌』(新曜社, 2004), p.243-263)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2) 이것의 의미는 김효순/유재진이(『한국 모더니즘 문학과 일본어 글쓰기-정지용의 일본어 시작(詩作)을 중심으로』(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연구』 제30집, 2011.2), p.290)에서, 정지용은 1920년대 일본유학시기 동안 한일양국어 창작 과정을 통해 한국어가 ‘일본어 체계에 흡수될 미숙한 언어가 아니라 한국어/일본어 상호 호환 가능한 언어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13) 윤대석은 「1940년대 한국문학에서의 번역」 『민족문학사연구』 33집, 2007)에서 이 시기 번역 급감 현상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

14) 윤대석 「1940년대 한국문학에서의 번역」 『민족문학사연구』 제33집, 2007), p.312.

조선의 작가에게는 불가능한 상담을 들고 나와 일본어로 쓰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 대신 조선어문학을 번역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도쿄문단이나 세계문단과의 교류를 꾀하며, 조선문학의 현상이나 조선문학이 진정 조선의 말로 쓰여지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을 고시해야만 한다.¹⁵⁾

협의를 번역은 출발어를 전제로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중어상황하에 처한 조선인 작가들은 일본어 창작을 강제당하여, 모어 창작=번역을 억압당했다¹⁶⁾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조선문학 일본어번역은 거의 조선작가들이 담당하고 있었고, 조선어로 창작하고 그것을 일본어로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이덴티티의 증명임에 다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3. 『한반도(韓半島)』의 조선문예물 번역

(1) 『한반도』의 간행 목적과 시대적 배경

『한반도』가 간행된 시기(1903~1906)는 일본국내에서의 정한론의 대두로 새로운 투자처이며 특권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장소로서 조선이 주목의 대상이 된 시기로서 위에서 고찰한 번역의 시기구분에서 제1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이민을 하는 일본인을 위한 회화서, 철도업무 종사자를 위한 회화서, 일본인 경찰을 위한 회화서, 토지조사를 위한 조선어 회화서, 교육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조선어 회화서’ 등이 출판되었다.¹⁷⁾ 이러한 조선에 대한

15) 金史良, 『朝鮮文學風月錄』 『文芸首都』 1939. 6(『金史良全集』 IV, 河出書房新社, 1973), p.15.

16)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윤대석은 ‘번역은 식민지 지배자에게는 일본어의 우위성을 나타내는 기표이지만, 식민지인에게는 조선어의 특권성, 번역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기표가 된다’(윤대석 『1940년대 한국문학에서의 번역』(『민족문학사연구』 제33집, 2007), p. 324)고 하고, 임종국은 ‘결론적으로 일치 말업의 조선 작품의 일역 또는 일본 작품의 조선어역은 바로 내선의 문화교류 및 국어보급 문제에 직결되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것은 친일 작품은 아니지만, 그 방조적 역할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임종국 『친일문학론』(평화출판사, 1966), p.218)고 분석하고 있다.

17) 성윤아, 『근대 일본에서의 조선어회화 학습 열기-조선어회화서 범의 실체』(『아시아문화연구』 제25집, 2012.3), pp.83-84.

관심은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의 승리에 의해 더 한층 고조된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필요성이나 생활상의 정착을 위한 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출판물은 부족한 상태였다.

1903년 11월 재한 일본인 사회에서 발간한 최초의 종합잡지 『한반도』가 창간된 것은 바로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잡지는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5호까지 발행—1903년 11월 제1호 발간, 1904년 1월 제2호 발간 후 중지, 1906년 3월-5월까지 제2권 제1~3호 발행—되고 폐간되어 비교적 단명으로 그쳤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초기 한국 연구 내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지면구성은 논설, 사전(史傳), 지리(地理), 인정풍속, 문학, 소설잡조(小說雜俎), 문원(文苑), 실업, 교통과 안내, 근사요건(近事要件)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간 취지는 한국에 대한 소개, 정보제공 범위는 역사, 문학, 풍속, 지리, 경제상황 등에 걸쳐 있다. 편집인 겸 발행인인 하세가와 긴지로(長谷川金次郎, 필명 長谷川白適)의 발행사를 보면 그 취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그는 ‘조선은 동양 파란(波瀾)의 원천’으로, ‘동방의 평화를 보호하는 근거지는 한반도’라고 전제한다. 그리고 ‘러일 양국 간 육군의 운동은 반드시 한반도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조선은 ‘우리 국방의 책원지(策源地)’이며 ‘상략(商略)상에서도 역시 조선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유신(維新) 이후 대한(對韓) 정책에서 항상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 한반도의 사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비단 당국자의 잘못 만이 아니라, 조야인사(朝野人士)에 이 나라를 연구하고자 하는 자 적고 따라서 그 형세사정(形勢事情)을 모르고 앉아 있을 뿐으로, 이것이 우리 나라가 대한책(對韓策)에 있어 실패의 역사를 거듭하는 소이다’¹⁸⁾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잡지 간행의 취지를 피력한다.

반도의 연구에 뜻을 두고 한국연구자의 지도가 되고 소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재류인(在留人)의公德(公德)을 크게 양성하고 그 명성을 발휘하며, 장형국민(兄長國民)으로서 한국의 부액(扶掖)에 힘쓰는 물론 내외의 우리 동포에게 이 반도국의 신현상을 알리고 그로써 표준을 삼게 하여 구구한 영욕(榮辱)에 얽매이

18) 長谷川自適 「発刊の辞」 『韓半島』第一卷第一号, p.1.

지 않고 오로지 우리 동포의 이해(利害)에 힘쓰며 국가의 전도(前途)를 우려하고 또한 세상에 권세 있음을 모르며 직언직필(直言直筆)을 강고히 하여 휘에득상(毀譽得喪)의 밖에서 초연히 언론가의 본령을 발휘하고자 한다.¹⁹⁾

상권확보(商權確保)와 상략상(商略上) 조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형적 콜로니얼 담론이라 할 수 있지만,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정책(大韓政策) 실패의 원인을 한반도 사정을 몰랐기 때문이라 하고, ‘이는 비단 당국자의 잘못 만이 아니라, 조야인사(朝野人士)에 이 나라를 연구하고자 하는 자 적고 따라서 그 형세사정(形勢事情)을 모르고 앉아 있을뿐’이라고 분석하며 민간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당국만이 아니라 민간경제인 입장에서 실익과 생활상의 정착을 위해 조선에 관한 정보의 수요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하 다카기 마사요시(高木正義)의 발행 축하 글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쩌다 한반도를 소개하는 저서가 있어도 대부분은 역사나 지리를 설명하는데 그치며, 가끔 신문지상에 현재의 상태를 보도하는 것이 있지만 말하자면 수미가 일관하지 않은 영쇄(零碎)한 기사가 많아 도저히 한국을 연구할 만한 자료로서 만족할 수가 없다. (중략) 이에 우리는 늘 그 결점을 보완하는 것이 발행되기를 절실하게 기다리던 차에 하세가와군(長谷川君) 역시 이에 생각하는 바 있어, 역사에, 지리에, 사전(史伝)에, 문학에, 실업에, 교통에 기타 다방면으로부터 제종(諸種)의 재료를 모아 월간잡지 『한반도』를 발행한다.²⁰⁾

한반도에 진출한 경제인으로서 한국의 ‘국정(國情)’, ‘동포가 각지에서 발전하는 상태’에 관한 정보가 한정되어 있으며, 그래서 새로운 투자처, 이민지로서의 조선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소개하는 ‘역사에, 지리에, 사전(史伝)에, 문학에, 실업에, 교통에 기타 다방면으로부터 제종(諸種)의 재료’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는 글이다.

19) 長谷川自適『發刊の辭』『韓半島』第一卷第一号, pp.1-2.

20) 第一銀行京城支店支配人/京城商業會議所會頭高木正義『韓半島の發刊を祝す』『韓半島』第一卷第一号, p.3.

이와 같이 『한반도』에는 한반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혹은 진출한 재조일 본인에게 이주를 촉진하고 경제적 실익과 생활상 정착에 필요한 한국에 관한 소개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간행된 것이며, 그 내용도 역사, 문학, 풍속에서 지리, 경제상황, 최신 사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반도」·「문예」란의 의의와 조선문예물의 번역

이번에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문예’란 설정의 의의와 조선문예물 번역의 양상을 검토해 보겠다. 잡지 『한반도』에는 <문예> 관련 지면에 <문학>, <문예(혹은 소설) 잡조(雜俎)>, <문원(文苑)>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오늘날 문학 개념으로 생각하면 모두 ‘문학’, ‘문예’의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잡지에서 이 세 가지 용어는 확실하고 일관적으로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문학(文學)>란은 제1권 제1호에 한 번 설정되었고 기사는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의 「한문학(韓文學)」(第1卷第1号, 1903.11)이 유일하다. <문학>이란, ‘시가·희곡·소설 등 문학작품을 연구하는 학문. 자연과학·정치학·법률학·경제학 등 이외의 학문 즉, 사학·사회학·철학·심리학·종교학 등 제분과를 포함한 호칭’(『日本国語大辞典』)으로 학문 분과의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아유카이 후사노신의 「한문학」은 한국문학에 관한 평론으로 위와 같은 학문 분과의 개념에 해당하는 ‘문학’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문예(혹은 소설) 잡조(雜俎)>로, ‘잡조’란 ‘여러가지 것을 모은 것. 또는 그 모양’(『日本国語大辞典』)의 의미이다. 용례를 보면 ‘중국 명대의 수필로, 천(天), 지(地), 인(人), 물(物), 사(事)의 다섯 종류로 나누어 명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과학 등 각 방면의 자료를 섞어 그것을 고증하고 시비를 논한 것’인 『오잡조(五雜俎·五雜俎)』(1619), ‘당대의 명가(名家)에 태어난 은성식(段成式)에 의한 백과전서적 전개를 갖는 수필집. 도교·불교·박물학·의식습관·이사기문(異事奇聞) 등 당시의 사상·사회의 저류를 규명하는 귀중한 자료’인 『유양잡조(酉陽雜俎)2』 등이 있다. 즉 ‘잡조’란 수필이라는 문예적 속성도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과학 등 각 방면의 자료’, ‘도교·불교·박물학·의식습관·이사기문’ 등의 글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표2】: 『한반도』문예관련기사>를 보자.

【표2】 :『한반도』문에 관련된사

巻号(年月)	掲載欄	著者(訳者)	題 目	内 容
第一巻第一号 (1903.11)	文学	鮎貝房之進	韓文学	한국 문학에 관한 평론
	小説雑俎	長谷川自適	小説囲いもの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예기 출신 오스즈(お鈴)의 박복한 인생 이야기
		自適軒主人	夏の和城臺	시정 풍부한 왜성대에 올라가 조망한 감상문
		無名散人	雨窓小品	비온 뒤 쓴 조선에 관한 상식
		茶楽齋	無題録	세태 비판과 짙막한 처세술 모음
	文苑	上村売剣	漢詩	
		槐園	和歌	
南山洞逸人		俳句		
第一巻第二号 (1904.1)	小説	銀杏生	はつ姿	장차 경성의 신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품행을 조심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하는 이노우에(井上)와 그 친구와의 대화
		自適軒主人	初夢	오사가 제일 가는 부자 집안의 새해 첫꿈 이야기. 근검 절약 정신 강조
		南村	琴はこ	정월 대보름의 유래가 된 신라 소지왕(昭智王) 시대 왕비와 그 신하의 역모에 관한 이야기
		それがし	朝鮮白銅譚前篇(一)	인천 월미도를 배경으로 매도(罵倒)선생의 눈에 비친 재조일본 상인들의 황금만능주의 비판. 덕의와 절조 요구
	文芸雑俎	長風生	棧棧雜記	송파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경험 회상기
		上村湖南訳	韓国の小説	춘향전 소개
		明浦生	宮女	조선궁녀의 지위, 역할과 그 인척관계 소개
		碌々閑人	韓国の妓生	기생의 종류 소개
		峨冠居士	半島の楽土	이주지로서의 부산제험담
		瓢零生	秋風録	도한자의 애환과 거류지 묘사
	文苑	長谷川自適	汽車雜觀	인천행기차속에서 본 풍경
			漢詩	
			和歌	
第二巻第一号 (1906.3)	小説	鳥越長円	ふたり妻	인천의 호상인 오하마 마나미(大浜万濤)와 그의 후처 사이지(才次), 그녀를 사랑하는 한인 홍반로(洪半魯)의 엇갈리는 운명을 그린 이야기
		村田仙骨	小技師	모성(謀省)의 고등관 부부의 아들 다케오(武男)에 대한 기대와 조선(造餉)기사가 되고 싶어하는 다케오의 심리를 그림
		長谷川自適	日露開戦前の七日間	러시아가 득세하고 일본이 위축되며 개전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러일전쟁 개전전의 경성 거류민사회의 분위기를 정육점에서 일하는 젊은 일본인의 눈으로 그림
	文芸雑俎	菊池幽芳	京城南山に上る	남산에서 바라본 경성의 지세. 자연 풍광은 교토보다 훌륭하지만 그곳에 사는 조선인은 불결.
		菊池長風	滿月臺に逍遙す	고려 고양궁터 견물기
		春邱居士	二つの泉の記	요양차 찾은 온천지를 읊은 운문
		上村濤敏	薄命曲	백제 4대왕 개루왕(蓋婁王)과 그의 신하 도미 아내의 정조 이야기
		上村濤敏	烈女吟	백제 개루왕과 그의 신하 도미 부부의 노래

		村田仙骨	空竹の話	조선의 빈대 명칭에 관한 유래	
		自適軒主人	漢城の月夜	한성의 시내 종로, 광화문, 경복궁일대를 산책하며 그린 봄밤의 풍경	
		天然齋	巨絃細絃	조선의 오락으로서의 매춘정보	
	文苑	山根果園/金子東山/結城齋堂/柳原松塙	漢詩		
		仙骨 福井畝蔭	新体詩 南山の上にな 立ちて 韓山の叫び		
		槐園	和歌		
鷗盟/長円/東李園主人		俳句			
第二卷第二号 (1906.4)	小説	鳥越長円	ふたり妻(完)	제2권 제1호 참조.	
		長谷川自適	七日間(承前)	제2권 제1호 참조.	
	文芸雜俎	上村濤敏	新羅 丕寧子	신라 진덕여왕 시대 백제의 침략을 막아 싸운 비렁자와 그 아들 거진, 그리고 그 노복 합절의 충절 이야기.	
		黒衣仙	南山の巫女	화가인 필자가 남산에 올라 노인에게 들은 세상사 이야기.	
		円子	妓生を見ざるの記	편집자료를 구하기 위해 기생집을 찾지만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당하는 이야기.	
		自適軒主人	酒幕と賣春家	한국의 하루 계층 노동자를 위한 위안소인 주막과 일본인 거류지 주변의 매춘가 소개.	
		天然齋	巨絃細絃	해외이주의 급선봉으로서 조선의 오락시설, 일본인들의 세태 묘사	
	文苑	五山生/竹史/金華老人/蘭史生/白生/高橋鶴洲	漢詩		
		東李園主人	和歌		
		自適軒主人	俳句		
	第二卷第三号 (1906.5)	小説	巴之助	情知らず	키위준 어머니이자 매춘부인 오쓰루(お鶴)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은행가와 결혼을 강요당하는 오연(お艶)의 이야기
			長谷川自適	ゆく春	경성의 상인 다가하마(高浜)를 둘러싼 예기의 운명을 그린 이야기
文芸雜俎		横天溟	統營遊記	부산거주 도한 일본인의 통영여행기	
		それがし	山影水声記	남산과 한강을 중심으로 한 경성의 산수에 대한 단상	
		自適軒主人	春宵夢	남산에 올랐다 만난 미인과의 짧은 대화에 대한 감상	
		黒衣仙	庶晴止睡	미, 이상, 종교, 남녀관계등에 대한 단상	
		天然齋	巨絃細絃	이주지 조선의 물가와 성공을위한 마음가짐	
文苑		梅下生他	漢詩		
		天我他	和歌		
		震郎他	俳句		
		福井畝蔭	新体詩		

이 중 제1권 제1호 <문예잡조>란을 보면, 조후세이(長風生)의 『잔사잡기(棧榵雜記)』(송파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체험담), 우에무라 고난(上村湖南) 역 『한국의 소설(韓國の小説)』(춘향전 소개), 아키우라세(明浦生)의 『궁녀(宮女)』(조선 궁녀의 지위, 역할, 인척관계 등 소개), 로쿠로쿠 한인(碌々閑人)의 『한국의 기생(韓國の妓生)』(기생의 종류 소개), 아관거사(峨冠居士)의 『반도의 낙토(半島の樂土)』(이주지로서의 부산체험담), 효레이세이(瓢零生)의 『추풍록(秋風錄)』(도한자의 애환과 거류지 묘사), 하세가와 지테키(長谷川自適)의 『기차잡관(汽車雜觀)』(인천행 기차에서 본 풍경) 등이 있다. 이주지로서의 한반도 체험담, 일상생활, 풍속, 습관, 풍경 등을 소개하는 설명문이나 수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문원(文苑)(=文園)>이란 ‘문장·작품을 모은 것. 문집(文集)’(『日本國語大辭典』)을 의미하며, 예로서는 『문원영화(文苑英華)』(982-987)가 있다. 이 서적은 ‘양말(梁末)에서 당(唐)·오대(五代)까지의 시문을 모은 총집(總集)’이다. (『世界文學大事典』) 즉 ‘문장·작품’을 모은 것이지만 주로 ‘시문’ 즉 운문을 일컫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문원>란 역시 한시, 와카(和歌), 하이쿠(俳句)가 중심이며, 간혹 신체시(新體詩)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면, 이 잡지에서 <문학>, <문예(소설)잡조>, <문원>이 어떤 차별성을 띠며 설정되었는지 알 수 있다. 즉 선행연구에서 한반도 간행 일본어 잡지의 문예란 설정 의의로서 자주 지적하는, 이민자, 식민자로서의 자기동일성의 발견, 재조일본인 사회의 우월적 문화공동체의 구축, 내셔널리즘의 추구²¹⁾ 등은, 한시, 와카, 하이쿠와 같은 일본 전통문학 장르로 구성되어

21) 이 시기의 문예란 설정의의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일본인이면서 본국을 떠나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재조일본인이라는 이중적 자기동일성을 발견하고, 또 자신들의 존재를 ‘내지’에 호소하기 위한 차원’(박광현 『조선거주 일본인의 일본어 문학의 형성과(비)동시대성』 『韓半島』와 『朝鮮之實業』의 문예란을 중심으로, 『日本學研究』 第31輯, 2010.9, p. 320), ‘러일전쟁과 을사보호조약, 한일병합이라는 이 시기 한반도 <일본어 문학>의 특징은 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 당시 콜로니얼 담론에 호응하며 조선인 사회와 준별되는 한국 내 일본인사회의 우월적인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 재조일본인들에게 문화적 오락을 제공하기 위함’(정병호 『한반도 식민지 <일본어 문학>의 연구와 과제』 『한국일본학회』 『日本學報』 第85輯, 第2章), ‘디아스포라적 내셔널리즘의 문화적 추구의 일환’(허석 『근대 한국 이주 일본인들의 한국문학 번역과 유교적 지의 변용』 『최박광 외 『동아

있는 <문원>란이 핵심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우에무라 고난 역 『한국의 소설(1)춘향전』(第1卷第2号, 1903.12)의 번역 의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가 <문예잡조>에 게재된 사실 그 자체가 역자, 혹은 편자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하 인용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한문학(韓文學) 즉 한국고유의 문학은 여전히 우리나라 중고(中古)의 국문학에서처럼 발달이라든가 진보와 같은 유망한 역사를 갖지 않는다. (중략) 한문(漢文)에 완전히 압도되어 겨우 하등사회, 부인사회(婦人社會)에서 근근히 명맥을 잇고 있는 몹시 딱한 처지이다.²²⁾

이는 중국의 한문학(漢文學)에 압도되어 한국고유의 문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겨우 하등사회나 부인사회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일종의 조선문학부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선문학부재론은 이 시기 일반화된 조선문학·문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각 즉 ‘조선은 문예에 있어서 일본의 사전(師傳)이었지만 한문의 세력이 너무 심대하였기 때문에 특유의 문학이 번창하지 않고, (중략) 오늘날 조선은 거의 미술, 공예가 완전히 없어져 존재하지 않기에 이르렀다’,²³⁾ ‘불행하게도 나는 조선에 문학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한국에는 시가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다. 그렇지만 이 모두는 지나의 시, 지나의 미술, 지나의 음악이지 한국 특유의 것은 아니다.’²⁴⁾와 같은 조선문학·문화부재론의 일단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설(1)춘향전』을 번역, 게재하여 소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의 소설(1)춘향전』의 역자 우에무라 고난의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은 「한문학」에 나타난 아유가이 후사노신의 한국문학 인식과 흡사하다. 아유

시아의 문화표상』, 박이정, 2007), p. 562) 등의 해석이 존재한다.

22) 鮎貝房之進 『韓文學』 『韓半島』 第一卷第一号(1903.11), p.83.

23) 小山東助 『朝鮮同化論』, 『新入』, 1905), pp.14-15.

24) 『朝鮮의文學(上)』, 『朝鮮新報』 1907.9.10

25) 임경화는 『민족의 소리로서의 민요』 상층문화를 중국 문화에 오염된 것으로 비판하고, 반면 ‘조선민요’는 향토의 ‘소박’, ‘솔직’, ‘야생’이라는 말로 표상되는 원시성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그들은 ‘권력에 대한 순종성’, ‘지나 문화에 대한 종속성’, ‘창조성의 결핍’ 따위를 ‘조선민족’ 특유의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이 후사노신은 ‘한국의 전기소설(伝記小説)은 모두 하나 같이 천편일률적’이라 하고, 『춘향전』에 대해서는 ‘이 소설이 다른 소설과 유별되는 점은 소재를 지나에서 취하지 않은 점, 다른 소설은 전기소설 뿐인데 이 소설은 연애소설 즉 일본의 인정보(人情本)에 해당하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관리사회의 정태(情態) 및 부인사회의 정태를 유감없이 그려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장도 다른 무미삭막(無味索寞)한 언해적(諺解的)인 것이 아니라 약간 출중(出色)한 감이 있다. 우선 한국의 소설로서는 제일류로 꼽지 않을 수 없다’²⁶⁾고 평가한다. 한국문예물중에 제일류로 『춘향전』을 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로서 ‘그 문장’이 ‘출중한 감’이 있다고 하는 문학성보다는, ‘한국관리사회의 정태(情態) 및 부인사회의 정태를 유감없이 그려내고’ 있다는 점을 우선시하고 있는 태도이다. 이 작품은 문학작품이기 이전에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으로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유카이 후사노신²⁷⁾이 조선고대의 지명·왕호(王号)등에 대한 고증연구를 하는 언어학자, 혹은 역사학자로서 언어학적, 민속학적 방법으로 접근한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우에무라 고난의 한국문학 인식과 『춘향전』에 대한 평가를 보자. 그는 『한국의 소설(1)춘향전』에서, 『춘향전』번역 전에 한국문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내용은 ‘한국의 소위 소설패사(小説稗史)는 원래 역사적으로 봐서 청국인(淸國人)이 편저(編著)한 것을 번역한 것이 적지 않다’, ‘소설가로서는 그 전문가가 없고’, ‘원래 한국인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소설패사에 대한 관념이 희박한 결과 명작이라고 해도 고작 부녀자, 혹은 야인배(野人輩)들의 심심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강독자는 적지 않아도 그 저작물로 하여금 일세의 명성을 떨치는 일은 거의 드물다’²⁸⁾라고 하고 있다. 우에무라

26) 鮎貝房之進 『韓文學』 『韓半島』第一卷第一号, pp.88-89.

27)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1864.2.11~1946. 2.24)은 일본의 언어학자이자 역사학자, 가인(歌人)이다. 그는 1884년 관비유학생으로서 도쿄외국어학교 조선어학과(東京外國語學校朝鮮語學科)에 입학하였고, 1894년 조선에 건너와 경성에서 5개 사립소학교 창설 책임자가 되었다. 1916년에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의 협의원(協議員)이 되고, 1933년에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회위원이 된다. 대표적 저작인 『잡고(雜攷)』는 조선의 지명, 왕호 등을 연구한 것으로 1931년 5월부터 1938년 5월에 걸쳐 경성에서 출판되었다.

28) 上村湖南訳 『韓国の小説(1)春香傳』 『韓半島』第1卷第2号, 1903.12), pp.104-105.

역시 아우카이와 마찬가지로 한문학 영향으로 조선문학은 전문가도 적고, ‘소설패사에 대한 관념’도 희박하며, 그 레벨은 ‘고작 부녀자, 혹은 야인배(野人輩)들의 심심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만 모 한국인 작품 중에 『춘향전』 『사씨남정기』 『구운몽』 같은 것은 소위 명작이라 할 만하며 『춘향전』은 인정연애(人情戀愛)를 그린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춘향전』이 조선사회의 실상, 인정을 그리고 있음을 평가하고자 하는 인식은, 위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개 이주지, 이민지로서의 조선에 대한 정보제공의 성격이 강한 <잡조>란에 게재된 것으로도 이미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은 조선문예물에 대한 역자들의 의식은 번역의 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춘향전』에 대한 역자의 인식과 번역 방법을 피력한 글이다.

기자는 이 기회에 전술한 춘향전 및 기타 한 두 작품의 대략을 번역하여, 그로써 독자에게 한국소설 일반을 소개하고자 한다(중략) 고로 그 기사는 거의 저자의 이상의 표현으로 춘향은 그 이름만 끝어다 쓴 것에 불과하다. 그 줄거리는 번역을 보면 차차 알게 될 것이다. 29)

이 글에서 번역의 목적은 ‘독자에게 한국소설 일반을 소개하고자’하는 것이며, 그 방법으로는 ‘대략’ ‘줄거리를 번역’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관리’와 ‘기생 같은 천업부’ 사이의 인정을 다루는 패사로써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고, 인정의 세계를 대략 소개하면 되기 때문에 줄거리만 소개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그 문장도 다른 무미삭막(無味索寞)한 언해적(諺解的)인 것이 아니라 약간 출중(出色)한 감이 있다’고 하며 높이 평가한 문학적 요소의 전달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잡조>란에는 『춘향전』 외에도 미나미무라(南村)의 『가야금상자(琴はこ)』(제1권제2호), 우에무라 도보(上村瀧敏)의 『박명곡(薄命曲)』(제2권제1호), 우에무라 도보의 『열녀음(烈女吟)』(제2권제1호), 우에무라 도보의 『신라 비령자(新羅 丕寧子)』(제2권제2호) 등 조선의 고전 설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 역시 조선의 문예물로 인식된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29) 上村湖南訳 『韓国の小説(1)春香傳』(『韓半島』第1巻第2号、1903.12)、p.104-105.

그 내용을 역자가 요약, 소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용전달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조선 고유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주석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몽룡이 암행어사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클라이막스 장면에는 다음과 같은 역자주가 본문과 함께 나란히 실려 있다.

역자 알. 한국 국전(國典)에 어사(御使)는 폐하의 어명을 받아 행하기 때문에 그 권위가 지극히 높고 늘 암행비찰(暗行秘察)을 주로 하며, 만약 수령(受領)에게 판사 엄벌(判事嚴罰)할 점이 있으면 곧장 그 지역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을 어사출도라 한다. 그 출도 방법으로는 우선 처음부터 출도를 포고(布告)하는 방법과 갑자기 출도하는 방법이 있다. (후략) ³⁰⁾

민중의 의식, 사상, 철학 등의 내용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회적 배경 설명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한반도』에 나타난 한국문학 인식, 번역의 주체, 대상, 목적 등을 정리해 보면, 한국문학은 이민, 식민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재조일본인에게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상권 확보상, 상락상의 실익을 추구하는 민간 경제인이었고, 번역하는 방법도 언어예술로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아니라 개략적인 내용전달을 주로 하는 줄거리의 대략적인 소개와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주석의 방법을 취했음을 알 수 있었다.

4. 맺음말

이상 근대이후부터 식민기간의 조선문예물 번역의 전체상—시대에 따라 번역의 주체, 목적, 대상, 방법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을 한반도에서 간행된 일본어 잡지 『한반도』, 『조선(및 만주)』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적 상황이나 언어·문화정책과 관련지어 개괄하고 그 제1기에 해당하는 청일전쟁·러일전

30) 上村湖南訳『韓國の小説(1)春香傳』(『韓半島』第1卷第2号、1903.12)、p.108.

쟁 직후에 창간된 『한반도』의 조선문예물의 성격을 검토해 보았다. 식민지시기의 조선문예물은 기본적으로 식민지배를 위한 정책 실현이나 통치상의 편의를 위한 식민지 지의 구축의 일환으로 번역되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각 시기별로 그 구체적 양상은 변화를 보인다. 특히 『한반도』의 조선문예물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이 식민지배를 위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식민지 정보를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형태로 번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조일본인 사회의 국민적 일체감 형성이나 위안, 오락을 추구하기 위해 게재된 일본의 전통문예장르와는 달리 조선사회의 실상, 풍속, 사상 등을 전달함으로써 교역, 상업상의 이득을 꾀하고 조선사회와의 교류, 이민생활의 정착에 주요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번역의 대상이나 방법에도 영향을 미쳐, 언어예술로서의 측면보다 조선사회의 인정이나 풍속의 표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작품을 선정하고 방법상으로는 요약, 의역, 상세한 역자주의 삽입이라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초기의 조선 문예물 번역의 양상은 이후 식민정책의 수립이나 통치상의 필요에 의해 관주도로 이루어진 조선문예물의 번역과는 차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식민지시기 조선문예물의 번역양상을 제1기만 구체적으로 검토했는데, 이후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参考文献>

- 金史良(1973) 『朝鮮文學風月錄』, 『文芸首都』, 『金史良全集』Ⅳ 河出書房新社 p.15.
 김효순·유재진(2011.2) 「한국 모더니즘 문학과 일본어 글쓰기-정지용의 일본어 시작(詩作)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연구』 제30집 p.290.
 박광현(2010.9) 「조선거주 일본인의 일본어 문학의 형성과 (비)동시대성」, 『韓半島』와 『朝鮮之實業』의 문예란을 중심으로, 『日本學研究』 제31輯 p.320.
 성운아(2012.3) 「근대 일본에서의 조선어회화 학습 열기-조선어회화서 붐의 실체」, 『아시아문화연구』 제25집 p.71.
 윤대석(2007) 「1940년대 한국문학에서의 번역」, 『民族文學史研究』 제33輯 p.132.
 임종국(1966)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p.218
 정병호(2011.10) 「1910년 전후 한반도 <일본어 문학>과 조선 문예물의 번역」, 『日本近代文學研究』 제34輯 p.147

허석(2007) 『근대 한국 이주 일본인들의 한국문학 번역과 유교적 지의 변용』 최박광
의 『동아시아의 문화표상』 박이정 p.562.

황호덕(2008) 『제국 일본과 번역 (없는) 정치-루쉰·룽잉중·김사량, ‘阿Q’적 삶과 주권』
『대동문화연구』 제63집 pp.381-382

鮎貝房之進(1903.11) 『韓文学』 『韓半島』 第一卷第一号 p.83

上村湖南訳(1903.12) 『韓国の小説(1)春香傳』 『韓半島』 第1卷第2号 p.108

小山東助(1905) 『朝鮮同化論』 『新人』 pp.14-15

中根隆行(2004) 『朝鮮表象の文化誌』 新曜社 p.243-263

長谷川自適(1903.11) 『発刊の辞』 『韓半島』 第一卷第一号 pp.1-2.

第一銀行京城支店支配人/京城商業會議所會頭高木正義(1903.11)

『韓半島の発刊を祝す』 『韓半島』 第一卷第一号 p.3

(1907.9.10)

『朝鮮の文学(上)』 『朝鮮新報』

(1922)

『朝鮮語總督府施政年譜』 1918-1920 pp.140-141.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7일

게재결정: 8월 01일

<Abstract>

**A Study on Korean Literature Translated
in Japanese Magazine during Colonial Period**

So far, we have looked into the big picture of literary translation in colonial Korean : how it had been changing its subject, object or method in relation to political and economical situation. The study is focused on literary works in 『Korean Peninsula』, 『Chosen(and Manchuria)』, which are Japanese magazines published in Korean. It is obvious that literary works in colonial Korean were generally written as the means of assisting colonial policy. However, the details vary throughout the era. Especially as Japan started to express the desire for colonization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 literary works in 『Korean Peninsula』 were translated in such a fashion that meets the demand for information about their colony. Thus, the literary works differed from traditional Japanese literature that were written for national propaganda or entertainment. Instead, they were aimed at promoting migration and gaining interests in transactions by conveying information about the society of Korean. And the purpose was also reflected on the objects or methods of translation. The literary works were selected based on how exactly they showed custom of Korean, rather than how artistic they were. Furthermore, the translators took the methods of summarization, liberal translation and detailed annotation. Such tendency differentiates early translation in Korean from the translation afterwards which was conducted officially in order to establish colonial policy.